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사순절 묵상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고후 3:17-18)

4대 목사 청빙위원회 규정 당회 통과

지난 3월 6일(수)에 열린 정기당회에서 4대 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 규정이 당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

습니다. 4대 목사 청빙이 주님의 계획 아래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빙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서울교회 정관에 따라 담임목사(위임목사), 부목사 등 교역자의 청빙과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담임목사(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규정
1. 담임목사(위임목사)의 청빙자격은 본교단의 직영 신학대학교의 M. Div 과정을 졸업하고 목사안수 후 10년 이상의 목회경력을 가진 분으로 한다.

2. 당회는 현 담임목사(위임목사)의 정년은 퇴 2년 전에 당회 산하에 청빙후보 추천위원회와 청빙후보 선정위원회를 각기 구성한다.

3. 현 담임목사(위임목사)가 재신임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당회는 즉시 상기 2항의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담임목사(위임목사) 청빙 업무를 시작한다.

4. 청빙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위원장이 되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당회서기가 된다. 각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을 당회결의로 선정하고 각 위원회는 서기와 회계를 둔다.

5. 현 담임목사(위임목사)와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6. 본 교회 성도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은 후보대상에서 제외한다. (직계가족은 자녀와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존비속을 의미한다.)

7.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 중 6인을 추천하여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는 6인을 후보 선정위원회에 회부한다.

8. 선정위원회는 6인의 후보 중 최종후보 3인을 선정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9. 당회는 최종 후보 3인에 대하여 전체 교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담임목사(위임목사) 청빙 대상자를 결의한다.

10. 당회는 본인의 수락을 얻어 제직회(또는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위임목사)로 청빙하고 이를 노회에 청원한다.

11.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12. 당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각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직계가족은 자녀와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존비속을 의미한다.)

교구찬양축제 행사를 '국내 선교 유적지 순례 행사'로 변경

지난 3월 6일(수)에 열린 정기당회에서 올해 중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교구찬양축제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교 유적지를 함께 순례하며 믿음의 길을 더욱 든든히 가고자 하는 결심과 함께 이 신앙 따라 교회에 더욱 봉사하여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국내 선교 유적지 순례 행사'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은 교구별로 코스를 신청 받아 일정을 협의한 후 해설사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스는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 및 변경 가능합니다.

현재 당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코스는 4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기도가 먼저라!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6시, 웨스트민스터홀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이동귀(1/2)

다락방 보고는 교회 홈페이지로

2024년 봄 다락방이 개학을 하였습니다. 다락방장님들께서는 다락방 보고를 홈페이지에서 다락방 모임 보고를 해 주시고, 나눔지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을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갈릴리에서 땅끝으로

(마 28:16-20)



손달익 위임목사

우리는 시대를 통찰하는 예리한 분별력과 명철함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적응하려다가 그리스도인의 근본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의 근본, 그리스도인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목사이며 작가인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매우 무겁게 실천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마

태복음은 구조적으로 말씀과 주님의 이적을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교훈과 생활 속의 실천을 조화롭게 이루어나갈 것을 강조하는 의도적 구조입니다. 특히 마태는 교회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많이 교훈하고 강조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주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고 분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갈릴리를 출발하여 땅끝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1. 갈릴리로 가신 주님

복음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일을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 이유에 대해 혹자는 그들을 신앙의 원점으로 다시 부르신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자는 주님의 제안이라고 해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2등 국민 취급을 당했습니다. 변방의 도시였던 갈릴리는 자주 외세의 침공을 당하며 고통을 당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늘 갈릴리 사람들을 천대했습니다. 이런 갈릴리에 나사렛 예수의 등장은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모든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갈릴리 사람들의 희망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이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제3의 해석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나라의 변방지대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이웃 나라 사람들이 갈릴리를 통과하여 먼 나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삼시간에 인근 여러 나라에 전파되곤 했습니다.(마 4:24, 막 1:28)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도 오고가는 사람들을 통해 인근의 모든 세계로 순식간에 전파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이곳으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넓은 세계로 나아가 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을 향해 복음의 문을 활짝 개방해야 할 세계 선교의 큰 비전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전후해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혹스러웠고 두려웠으며 상처도 있고 불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는 더 멀리 넓게 온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한 과거에 발목 잡히지도 말고, 자기 고민에 매몰되지도 말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주눅 든 모습으로 살지도 말고, 눈을 들어 모든 민족들의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복음 들고 나갈 결심을 해야 합니다.

2.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19, 20절). 선교학에서는 이 명령을 그리스도의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으로 부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는 말씀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면 본문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도를 명령하시는 대위임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소위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불리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모든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로 이루는 일을 위해서,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일들을 위해서, 세계 교회의 신학적 성장을 견인하는 일을 위해서, 전 세계의 교회성장을 주도하는 일 등을 위해서 기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기 교회 역사는 선교역사였고 그들의 신학은 선교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하지도 않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 베풀라고 하시는 말씀을 명심하고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땅끝에 이르도록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한 과거에 발목 잡히지도 말고,
자기 고민에 매몰되지도 말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말고,
눈을 들어 모든 민족들의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복음 들고 나갈 결심을 해야 합니다

3.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는 제자들의 준비가 온전치 못했을 때였습니다. 신앙적 내용의 정리도 미비했고, 공동체 안의 내부적 정비도 더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한 마음의 결단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주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에 대하여 염려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어떤 제자는 예수를 뵈고 경배하였지만 어떤 제자는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항상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핍은 우리를 두렵고 망설이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부족은 우리를 현실 문제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의 결론 부분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거듭 약속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히 밝히며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권능 많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염려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거룩한 복음 사역에 헌신하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신앙의 원점에 다시 서서 주님은 땅끝의 먼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결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갈릴리를 출발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서 폭발하기를



김익환 목사
(갈라디아서 담당)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 복음으로 가득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다른 복음에 맞설 수 있도록 '진짜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가득한 '원초적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회심한 후에는 복음을 듣거나 공부하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고 무언가 좀

더 '고차원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일련의 기초 교리이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관문 정도로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만이 아니라 전부이며, 평생에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깊은 의미와 안정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기쁨과 자유를 다룹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를 다시금 복음 앞으로 이끌어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폭발해 온전히 복음에 중심을 두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나누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현종필 목사
(여호수아서 담당)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의 목적이 완성된 것을 전하기 위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

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 40년 유랑기를 통해 연단시키셔서 성민으로 기르시며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성취요, 출애굽의 완성이므로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음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4년도 전반기 화요 성경대학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우리 삶에서 위축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의 눈 앞을 어둡게 만들 때에 여호수아가 만났던 용기와 승리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 70인전도대를 다시 시작하며

한걸음 한 생명 땅끝까지 파이팅



김지수 안수집사
(70인전도대 대장)

겨울방학을 마치고 3월 3일(주일)부터 70인전도대와 선교회, 전도회, 스테반회, 권사회가 협력하여 노방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열심히 노방전도에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전도의 불씨가 더 뜨겁게 온 교회로 번져가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승전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들을 묵

상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전도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주변부터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시간을 드려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길 소원합니다.

죄악되고 허탄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도현장에 나갈 때, 예비하신 영혼

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며 가장 큰 이웃 사랑은 영혼구원, 전도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전도하고 싶은 분은 주일과 수요일 오후 1시에 603호로 오시면 함께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성도의 마지막 책임이자 의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천로역정의 순례자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전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기도하며 권면 드립니다.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고령 성도 및 장기 결석 환자 성도 심방



손달익 위임목사님의 고령 성도들과 장기 결석 중인 환자들 심방이 은혜 중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4-1 김복녀 은퇴권사님, 8-7 한정원 은퇴권사님을 심방하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시다 말씀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찬송하셨습니다. 꼭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싶으시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계시는 곳에서 기도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방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교구 담당교역자나 박미라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



고등부 겨울수련회



순례장학기금, 올해 1억원 증액 기부

이순례 은퇴권사님은 2023년 1월에 장학금 2억을 기부하시어 '순례 장학금'을 조성하신 후, 올해 1월 또 1억원을 기부하시어 총 3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심정으로 서울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거액의 장학금을 쾌척하신 이순례 은퇴권사님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모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자라 서울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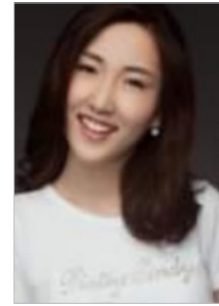
이순례 은퇴권사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순례장학기금'의 혜택을 받은 학생은 장유선 학생을 포함하여 3명이며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순례 은퇴권사님은 호산나 대학에도 작년과 올해 각각 1천만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순례 은퇴권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임교역자



박지연 전도사

영·유아부 지도 교역자로 박지연 교육전도사님이 부임하였습니다.

국내 선교 유적지 순례 코스

1. 전주·금산·군산 코스

전주 예수병원 → 전주기독교근현대역사기념관 → 신흥학교 → 서문교회, 한옥마을, 전동성당 → 전주대학교, 호남기독교박물관, 금산교회, 군산 구암교회 3.1운동기념관 → 군산 근대미술관·근대건축관 → 근대역사박물관 → 관세박물관 → 해망굴 → 히로쓰 가옥, 동국사 → 발산초등학교(시마타니) → 이영춘 가옥

2. 인천 코스

영화초등학교 →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구 감리교여성교사 숙소)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 일본우선주식회사 → 인천아트플랫폼 → 인천개항장, 근대건축박물관 → 인천 개항박물관 → 대불호텔 → 청일조계지 경계 → 화교중산학교(청국영사관터 및 회의청) → 공화춘 → 인천중화기독교 → 인천제일장로교회 → 제물포 구락부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 흥예문 → 성공회 내동성당, 내리감리교회

3. 강화도 코스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 → 연미정 → 성공회 강화읍교회 → 용흥궁 → 강화 부근리 지식묘 → 교산감리교회 → 강화평화전망대 → 교동교회, 박두성 장로 생가 → 성공회 온수리교회 → 광성보(또는 초지진)

4. 정동·마포 코스

정동 : 배재학당 정동제일교회 중명전 → 예원학교, 이화100주년기념관, 이화여고 옛 정문 → 중화기독교 한성교회 → 구 러시아공사관 → 고종의 길 → 구세군중앙회관 → 영국대사관 →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 덕수궁 대한문 → 마포: 양화진 외국인 묘역 → 절두산 순교공원 → 정교회대성당(양화진 → 연세대, 이화 여대)

5. 화성·수원 코스

한국경교역사연구원, 대진경교유형중국어비 모조비 → 화성 제암리교회, 순국기념관 → 수촌교회 → 수원 동신교회(노리마츠 선교사 기념비) → 매향여학교, 삼일중학교, 수원화성박물관 → 수원 종로교회, 수원화성행궁

민족복음화운동



EXPLOR 74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전도집회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것은 1970-80년대 일이다. 이때 한국교회는 전도와 성장에 전력을 기울였다. 1964년 11월, 17개 교파의 대표들이 1965년에 대대적인 초교파 전도운동을 펼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12월에 감리회의 흥현설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국복음화운동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민족복음화운동'의 시작이다. 민족복음화운동은 '삼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를 슬로건으로 삼고 전도훈련, 부흥회, 전도집회, 노방전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에 나섰다. 1960년대 후반에는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전군신자화운동이 일어나 군대에서 매년 대규모의 세례신자가 생겨났다.

1970년대에는 각 교파가 교회성장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우리 교단이 '매년 300교회 개척'을, 장로회 합동은 1만 교회, 감리회는 5,000교회 100만 신도, 성결교회는 1만교회 300만 신자, 기독교장로회는 2,000교회로 성장할 것을 결의했다. 미국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발전한 '교회성장 이론'이 때마침 한국에 들어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이론은 사회적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는데 아노미 현상을 집단적인 전도를 위한 기회로 삼자는 이야기는 한국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당시 한국은 군사독재와 급격한 산업화로 아노미 현상이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평신도 전도 훈련과 동원, 교회 밖 선교 기관과 연계, 대중문화의 적절한 이용 등 교회성장이론의 방법론은 한국교회에 폭넓게 적용되었다.

파라처치운동 단체들도 교회와 함께 복음화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1950년대 조직된 한국기독교학생회(IVF), 한국대학생선교회(CCC), 학생신앙운동(SFC), 1960년대의 네비게이터(Navigators),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1970년대 예수전도단(YWAM) 등의 대학 선교단체들은 민족복음화운동의 주

역이었다. 이 단체들에서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신앙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민족복음화의 꿈을 품고 열정적으로 활동한 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활력이 되었다. 그리고 CCC가 개발한 '사영리', 네비게이터가 개발한 '브릿지' 같은 전도지는 교회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1973년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전도 집회, 1974년 EXPLOR 74,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1980년 '80 세계복음화대성회로 이어지는 대규모 대중전도집회는 민족복음화운동의 절정이었다. 17개의 교파가 연합으로 개최한 빌리 그래함 전도집회는 한경직 목사가 대 회장을 맡았고 김장환 목사가 설교 통역자로 빌리 그래함의 설교를 전했다. 참석 연인원은 120만 명이었고 결신자는 17,703명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이 기록은 이듬해 바로 깨졌다.

EXPLOR 74는 우리에게 CCM가사로 익숙한 김준곤 목사의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문구를 표어로 삼았다. 대회의 주최는 CCC였고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했다. 정부는 여의도의 통금을 해제하고 군용 천막과 운송 수단을 제공하였다. 서울시는 상수도 위에 임시 수도꼭지를 설치해 참가자들의 세수와 목욕이 가능하게 하였다. 대회 기간 중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가 매일 500명씩 동원되어 안내를 맡았고, 대한적십자사가 미야보호소를 운영했다. 임시 우체국, 임시 소방서, 임시 파출소까지 설치될 정도로 EXPLOR 74는 정부의 큰 협조를 얻었다. 그 결과 참석 연인원 65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대회는 교회의 연합은 잘 보이지 않았고 김준곤을 비롯한 몇 인물의 주도성이 드러났다. 이 대회는 지나치게 친정부적이라는 비판을 국내외에서 받았다. 73년 한국을 방문해 철저히 종교적 메시지만 전달했던 빌리 그래함이

EXPLOR 74의 주강사였던 국제CCC의 빌 브라이트(William R. "Bill" Bright)가 독재정부를 두둔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설교에 포함했다고 비판하면서 둘 사이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는 다시 교회 연합으로 진행되었다. 32개의 교파가 연합하였고 600여 명의 강사가 말씀을 전한 이 대회도 역시 수백만의 참가 연인원을 보였다. 말 그대로 "맘모스 집회"가 연이어 성공하자 한국교회는 큰 자신감을 얻었다. 1980년의 집회가 민족복음화가 아닌 세계복음화로 명칭을 바꾼 것은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이 시기 한국교회는 말 그대로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였다. 각 교파들은 자신들이 세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크게 성장하였다. 예를 들어 감리회는 1975년부터 10년 동안 자신들의 목표치에 약 40%를 달성하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약 두 배의 성장이었다. 민족복음화운동은 한국사회에 한국기독교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혼란한 사회 속에 지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재정부와 유착된 열광적인 신앙 집회가 신음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를 묻어버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교세가 급성장하고 대형교회가 등장하면서 교파 내부나 기독교 전체의 결속력과 협력관계가 약화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그럼에도 민족복음화운동은 그 이후로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였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선교사 숫자가 가장 많은 교회이다. 민족복음화운동이 세계복음화로 이어진 결과이다.

의료선교부 상담 개시

서울교회 의료선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건강상담을 시작합니다. 본당 2층 로비 필경대 위에 비치된 문진표를 작성하시어 노란색 상담 문의함에 넣어주시면, 전문 의료진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상담 문진표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주요 증상			
1. 현재 가장 불편한 증상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원인, 증상, 지속 기간 등)			
2. 과거에 비슷한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요? (예: 만성 질환, 수술, 외상 등)			
3. 가족력: 부모, 형제, 자매 중 비슷한 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요? (예: 당뇨병, 고혈압 등)			
4. 다른 병에 대해 진단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가요? (예: 당뇨, 고혈압 등)			
5. 상담을 요청한 이유와 상담을 통해 해결을 기대하는 바를 말씀하십시오.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박지연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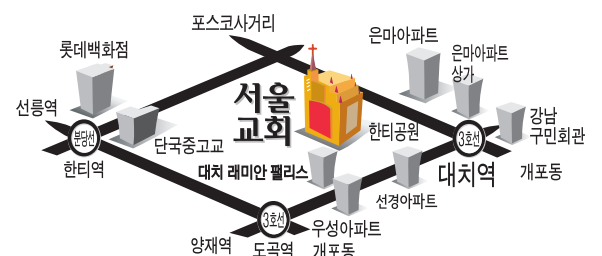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성도 동정



- 5교구
노선균 안수집사
(김의정 집사 부군, 노문환 원로장로·장정화 은퇴권사 장남)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

식사 제공



- 2교구
김형상 안수집사·최금숙 권사 가정
(외손녀 주심 감사드리며)

70인전도대 3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3.3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3.6	도르가, 루디아, 비비
3.10	자원자	바울, 엘리야	3.13	마리아
3.17	자원자	모세	3.20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3.24	자원자	이사	3.27	리브가
3.31	자원자	스데반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자	요일	1년 1독
3월11일	월	신 29:1-31:29
3월12일	화	신 31:30-34:12
3월13일	수	수 1-4
3월14일	목	수 5-8
3월15일	금	수 9-11
3월16일	토	수 12-14
3월17일	주일	수 15-17

이름:

맥체인 성경통독			
출23	요2	욘41	고후11
출24	요3	욘42	고후12
출25	요4	잠1	고후13
출26	요5	잠2	갈1
출27	요6	잠3	갈3
출28	요7	잠4	갈3
출29	요8	잠5	갈4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순절 넷째 주간에는, 삶에서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시고, 사랑과 배려로 그리스도를 닮는 천국백성 되게 하소서.
2. 제4대 담임목사 청빙 과정을 통하여 서울교회가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선교지와 농어촌후원 교회, 비전2030 군선교지에 성령의 위로와 역사로 함께 하소서.
3.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재보궐선거 과정에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생명의 능력이 전세계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마다 임하게 하소서.